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무안 아동센터에 물품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지난 24일 무안 지역아동센터 17개 처에 지역 희망품차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구호복지팀 임성희 팀장과 무안 지역아동센터 17개 처 센터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주은혜지역 아동센터에서 열렸다. 삼성의 후원으로 마련된

영양밥 세트 156개(금 444만2880원 상당)가 아동센터에 전달됐다. 박재홍 회장은 "삼성사의 후원으로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무안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교총, 정년·명예 축하 퇴임식 개최



광주교총은 지난 25일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정년·명예 축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교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허승준 광주교대총장, 명진 교육문

화위원장, 이성철 서부교육장, 정성숙 동부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교총 운영회 회장은 "이번 퇴임식이 단순히 명예로운 이별의 자리가 아니라, 스승 존중 문화를 회복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노인회, 2025년 정기총회



(사)대한노인회(회장 이종근·사진)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광복회 이종찬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근 회장은 "대한노인회 회원 영입 운동을 확대해 노인의 사회적 경향이 존중되며 나아가 품격있고 평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인인구 1000만명 중 다수의 회원을 확보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노인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근 회장은 또 지난 제2차 이사회에서 'UN데이 공영일 제지정 제안'을 결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도우미의 손길을 내밀었던 UN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전후세대에 물려주자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석·소암 공로상, 우수지회 공로상과 경로당활성화 사업 우수기관 시상 등이 진행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전남도사회복지사협회, 15·16대 회장 이취임식



전남도사회복지사협회는 26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영장에서 제15대 정병관 회장의 이임식과 제16대 박은주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명장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사회복지 관

계사 등이 참석했다. 취임한 박은주 회장은 "소통과 혁신의 중심, 미래를 이끄는 전남사회복지사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목포대, 순천청암고와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협약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화합물반도체센터는 최근 순천청암고등학교(교장 오승철)와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서비스, 그래픽 디자인, 보건경영 등 다양한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는 순천청암고는 이번 협약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로의 진출 기회를 확장할 예정이다. 국립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는 최신 반도체 기술 교육과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전희석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민주당 체육특별위 부위원장 임명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김민철 교수(사진)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당의 체육 분야 대선공약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기구다.

김민철 교수는 "지역 소멸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흐름속에 스포츠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개발에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약 50여 편의 연구공역을 통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스포츠산업 정책들을 발표했으며,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학술상, 한국체육학회 최우수논문상, 체육과학연구상, 대한체육회 체육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0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10 사랑의 가족(재)	10 수목드라마 키크키크(재)	15 건강의 재구성 섯록(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25 동네 한 바퀴(재)	00 12 MBC 뉴스 25 언더커버 하이스쿨(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김원희의 원더랜드(재)
13	00 KBS 네트워크 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신데렐라 게임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14	00 KBS 뉴스 10 방과 후 초능력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브레드와 월크의 세계여행(재)	55 기본 좋은 날(재)	00 좋은아침 스페셜
15	00 시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누가누가 잘하나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16	00 KBS 뉴스특보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도그래피 스페셜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풀리뉴스큐
17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다큐 스페셜 <솔로하우스>	05 위시켓 20 KBC뉴스와이드
18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신데렐라 게임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15 토크콘서트 화통 스페셜 50 SBS 8 뉴스
19	30 결혼하자 맹공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20	00 KBS 뉴스9	50 공사창립 특선다큐 살아있는 지구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정글밥2 - 페루밥
21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50 수목드라마 키크키크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2	00 KBS 중계식 <겨울나그네 - 박유신>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스튜디오 K	45 MBC 뉴스 25	50 테마스페셜(재)
23			05 언더커버 하이스쿨(재)	50 상상! 고향별곡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레인보우 버블뽀(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20 고향민국
07:00 최강경찰 미니특공대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PD로그
07:15 무지개 강아지 달린의 모험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이 맛에, 멕시코 -식민의 맛, 베라크루스>
07:30 얼마 깨투리	14:30 클래스 e	21:35 한국기행 <설국 낭만 4부 남과 함께>
07:45 하프와 친구들	15:10 고향민국	21:55 글로벌 가족 일기 - 대문 밖은 사파리
08:00 당동명 유치원	15:40 마사와 곰	22:45 다큐멘터리K
08:20 최고다! 호기심 딱지	15:55 불룩스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50 고고다!는 해양구조대	16:10 당동명 유치원(재)	24:00 클래스 e(재)
09:05 골짜기 처음 수학	16:30 페파 피구	24:20 지식채널e
09:20 사내수공업 가수 - 다비드 붐	16:40 마사와 곰	
09:40 글로벌 가족 일기 - 대문 밖은 사파리	16:55 얼마 깨투리(재)	
10:30 한국기행(재)	17:10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7일(음 1월 30일 丁卯)

<p>子</p> <p>36년생 사소한 국면에 사로잡히지 말고 편견 없이 대할 일이다. 48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0년생 추후라도 만 마음을 먹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72년생 정확한 정세 판단이야말로 성사 여부를 좌우한다. 84년생 관행을 중시하고 순리대로 처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96년생 기대 이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9, 64</p>	<p>午</p> <p>42년생 상대 역시 기본적인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54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66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78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90년생 조건을 구해본다면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다. 02년생 수요가 아니라 실속임을 분명히 알자. 행운의 숫자 : 20, 83</p>
<p>丑</p> <p>37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49년생 현하의 국세를 감안하지 않으면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61년생 활로를 개척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니 기탄없이 수용하라. 73년생 본격적으로 주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85년생 즐겁고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리라. 97년생 집착은 발목을 잡을 뿐이다. 행운의 숫자 : 32, 86</p>	<p>未</p> <p>43년생 부질없는 일에 매달린다면 엄청난 낭비로다. 55년생 애기까지 많은 지출을 키우는 일이 터지겠다. 67년생 적당히 햇볕을 쬐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79년생 대중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어림잡아도 지장이 없다. 91년생 제반 사정을 차치하고 당면 과제에 몰두하는 것이 옳다. 03년생 인정받을 수도 있는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 38, 51</p>
<p>寅</p> <p>38년생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50년생 단단히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62년생 불청객이 추진하던 일에 차질을 줄 수 있다. 74년생 낮에 난 도깨비가 분위기를 흐리게 할 수도 있다. 86년생 어떻게 처제하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98년생 승동이 터지면 사생력이 커진다. 행운의 숫자 : 01, 68</p>	<p>申</p> <p>44년생 판도를 쉽게만 본다면 많은 취약점들을 간과하게 되느니라. 56년생 취지는 좋으나 진행되면서 희석되어질 수도 있다. 68년생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80년생 바라보다만 있어도 능히 효과가 있다. 92년생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난처해지리라. 04년생 성공이 눈앞에 와 있으니 달리는 말에 체력을 가차지. 행운의 숫자 : 15, 77</p>
<p>卯</p> <p>39년생 철저하면서도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51년생 상부상조해야 만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63년생 부족함을 자기 발전의 동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조언을 구한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87년생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99년생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아예 손대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2, 62</p>	<p>酉</p> <p>45년생 설상가상에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57년생 중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리라. 69년생 생소하거나 허황된 것일랑 접어버리고 실질적인 것에 주력하는 것이 무난하다. 81년생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필요가 있다. 93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05년생 편리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3, 54</p>
<p>辰</p> <p>40년생 일단, 최선을 다 한 다음에 논의할 일이다. 52년생 임시방편적인 대처는 오래가지 못하리라. 64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하여 왔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76년생 가짜 판공에서 진짜가 파묻히는 예석함이 보인다. 88년생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염려된다. 00년생 발표되는 작용과도 같은 이치이니라. 행운의 숫자 : 02, 56</p>	<p>戌</p> <p>46년생 감각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58년생 가시적인 것보다 잠재적인 면에 주목해야 할 때다. 70년생 유연한 만남 속에서 의외의 행운이 따르게 된다. 82년생 구색을 다 갖추다 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들어진다. 94년생 대체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면서 실속이 있다. 06년생 상대에게 이익을 줘야 성립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7, 79</p>
<p>巳</p> <p>41년생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진땀을 빼겠다. 53년생 원칙적인 적용보다 합리적인 융통성이 더 필요한 때이다. 65년생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77년생 발상은 좋으나 침묵하고 있다면 무의미하다. 89년생 머뭇거리다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01년생 기본적 가치는 불변하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9, 84</p>	<p>亥</p> <p>47년생 여러 가지 동향을 고려해서 대응할 일이다. 59년생 합목적성과 투명함이 성과를 배가시키게 된다. 71년생 당당하게 나아가서 뜻을 펼치도록 할 때이다. 83년생 노력을 경주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95년생 과거에 묻어 두었던 비밀들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나는 형세를 이룰 것이다. 07년생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94</p>